

都鎮羽의 『東西醫學要義』에 대한 연구¹⁾

^{1,2}김현구, ³안상우, ⁴김남일

¹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²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³한국한의학연구원, ⁴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f Do Jinwoo's Dongseo uihak youi (東西醫學要義)

^{1,2}KIM Hyunkoo, ³AHN Sangwoo, ⁴Kim Namil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The HK+ Institute for Integrated Medical Humanities, Kyung Hee University,

³Korea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⁴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 the author, and the organization of contents of Dongseo uihak youi (Essentials of Eastern and Western Medicines), which was written by Do Jinwoo. In the colonial situation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tradition of Korean medicine faced crises and challenges in many ways. Members of the Korean medicine community were simultaneously faced with continuing the tradition of Korean medicine and becoming healthcare providers with a specific role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of the time. Dongseo uihak youi is the result of the collective and official efforts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of the time to maintain its tradition where only Western medicine was officially allowed to be taught and tested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Rules of the Medical Student (uisaeng). Dongseo uihak youi was the first Korean medicine book to precisely describe and compare the names of diseases in Eastern and Western medicines. Dongseo uihak youi contained not only medical theories and prescriptions but also laws and forms, in that the purpose of the book was not simply to cultivate clinical skills but also to demarcate the boundary of medical knowledge and activities required of a practitioner of Korean medicine in the modern colonial health care system of the time.

Key words : *Dongseo uihak youi*, *Essentials of Eastern and Western Medicines*, integration, comparison of diseases, integr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ines, colonial modernity

I. 서론

본 논문은 都鎮羽가 저술한 『東西醫學要義』의 간행 배경,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세기 초반 일제강점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의 한의학 전통은 여러 방면에서 위기와 도전을 맞게 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13년 조선총독부의 醫生規則 반포이다. 이로 인해 한의업 종사자는 서양의학을 공부한 醫師보다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고 총독부가 시행하는 보건 사업에 동원되도록 하는 식민보건의료체계에 귀속되게 되었다. 총

독부는 애초부터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의생들을 활용하고자 할 뿐이었고, 한의학 혹은 한의학 종사자들을 육성할 의지는 없었다. 이에 대한 예로 초기에 의생면허를 주기 위한 시험 교과로 서양의학 내용만 있었던 『醫方綱要』만을 제시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 구성원들은 한의학 전통을 이어나가면서도 당시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의료인력이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한의계의 고민을 잘 담고 있는 의서가 1920년대의 한의학술단체였던 東西醫學研究會에서 간행한 『東西醫學要義』라는데 주목하여 본 서적의 간행 배경, 저자에 대한 정보, 서적의 편제 및 구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

접수 ▶ 2023년 05월 15일 수정 ▶ 2023년 05월 30일 채택 ▶ 2023년 05월 19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1) 본 논문은 김현구의 석사논문 「일제강점기 한의학의 정체성 형성 연구: 都鎮羽의 『東西醫學要義』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東西醫學要義』의 간행

1) 서문을 통해 살펴본 간행 배경

『東西醫學要義』 발행 경위에 대한 단서는 1921년 결성된 東西醫學研究會에서 1924년 발간한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창간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창간호 뒷부분에 있는 ‘大正十二年度 會況概要’를 보면, 대정 12년(1923년)간 있었던 동서의학연구회의 회의 안건 및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중 10월 10일 정기총회 안건 중에 都殷珪가 발의한 『東西醫學要義』 저작발행 건이 가결되었음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²⁾ 다시 말해 『東西醫學要義』가 동서의학연구회에서 합의한 공식 발간서인 것이다. 이는 창간호 다른 부분에 있는 『東西醫學要義』 소개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개글을 보면 “본문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素問, 難經, 內經, 入門, 醫鑑의 묘체와 오늘날 새로이 발명된 서양의학의 신비로운 기술과 병명대조, 의생용 서식, 중두, 소독, 주사의 제반 방식을 망라 및 수집하여 내용이 충실합니다. 가을 총회에 통과한 결과로 지금 막 출판 중이니 醫生 및 藥種商께서는 빨리 주문하시오. 東西醫學研究會 庶務部”³⁾라고 되어 있다.

또한 『東西醫學要義』 서문을 보면 발행 경위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서문은 총 세 개가 실려 있는데, 첫 번째에 있는 당시 동서의학연구회 회장이었던 金性璣의 서문을 보면, “의학의 道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理이고 다른 하나는 術이다. 東醫는 이치에 밝으나 기술이 갖추어지

지 못하였고, 西醫는 기술에 민첩하나 이치가 갖추어지지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지나친 말이다. 내가 보기에 醫라고 하는 것은 먼저 理를 궁구한 후에 術을 베푸는 것이니 동서고금에서 이 전범을 바꾸지 않았다. ...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풍토와 기후와 복식과 거처가 발병의 요인과 크게 관계있음을 살피지 않아 전도하고 착오함이 한둘에 그치지 않으니, 본회에 있는 석학 都鎮羽 군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십수서를 열람하고 연구하고 경험하여 한 책을 펴내기를 이룸하여 東西醫學要義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였다.⁴⁾

이에 따르면 당시 한의학(東醫)과 서양의학(西醫)을 각각 理와 術에 대비하여 보는 관점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서문을 쓴 金性璣는 이분법적으로 동의는 理, 서의는 術로 나누어 보는 것은 지나치다[過言]고 경계한다. 동의에도 정교한 術이 있는 것이고 서의에도 참고할 만한 理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金性璣는 근래 의학에 종사하는 자들이 풍토, 기후, 복식, 거처가 발병의 원인에 관계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통해 조선의 풍토 및 기후, 복식, 거처에 적합하게 성립된 한의학이 중요함을 우회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동의를 理, 서의를 術로 보는 관점은 대한제국시기 근대화의 논리였던 東道西器 또는 舊本新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 같은 논의보다는 풍토가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서양의학보다 조선 실정에 맞는 한의학이 조선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보다 실제적인 주장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서양의학 위주 정책을 대항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학습하여 동서의학이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취지에서 “本會의 碩學”인 都鎮羽가 『東西醫學要義』를 저술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있는 동서의학연구회 부회장 李乙雨⁵⁾의 서문은 간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첫 번

2) 東西醫學研究會. 東西醫學研究會月報. 創刊號. 1924년 12월 30일 발행. 67쪽.

3) “本文(東西醫學要義)은 古昔로부터 傳來하는 素問, 難經, 內經, 入門, 醫鑑의 妙諦及現今에 新發明된 西醫學의 神術과 病名對照 醫生用法, 種痘, 消毒, 注射의 諸般方式을 網羅蒐集하여 內容이 充實하온바 秋期總會에 通過한 結果로 方今出版中이오니 醫生及藥種商僉位는 迅速注文하시오. 東西醫學研究會庶務部”

4) 첫 번째 서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醫之道有二焉 曰理曰術 知術而不知理 知理而不知術 奚以言醫 或說東醫昭於理而術不備 西醫敏於術而理不該 皆過言也 愚竊以爲 爲醫者 先究理 後施術 乃東西古今 不易之常典 噫 挽近以來從事於醫界之人 不察其風土氣候服食居處大有關於發病之因 一例救療顛倒錯誤 非止一再 本會碩學 都君鎮羽 是慮 是懼 閱十數星霜而研究 焉經驗 焉蒐輯 一書 名曰 東西醫學要義 蓋是書也 明乎死生之道 參乎新舊之學 於理 於術 無不該備洵 濟世之寶筏 吾黨之士 宜其口講而心究之養生之家 亦可置諸座右 右將付鈔梓索余一言敢陳燕辭 / 謹告 我滿天下 同業諸君子 / 癸亥重陽節 / 東西醫學研究會長 金性璣 題”

5) 李乙雨(1870~?)는 1921년 한의사단체인 東西醫學研究會가 조직될 때 부회장이 되었던 인물이다. 東西醫學研究會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한의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당시 전염병 전문 의원인 順化醫院에 한방과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官立避病院이라고도 부른 順化醫院은 본래 1909년 10월에 설치된 전염병 환자 전용병원이다. 이 병원에 한방과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를 관철해내어 李乙雨가 한의사를 대표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다. 李乙雨는 東西醫學研究會를 조직한 이후로 중로경찰서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지속적인 감찰을 받는 고초를

책 서문보다 구체적이다. 서문을 보면 “... 대개 헌원과 기백 이래로 사천년 동안 단지 동의학만 있다고 아는 까닭에 오운육기의 이치와 삼세사가의 책을 상호전수하여 지금에 이르러 널리 베풀고 구체하였는데, 근세 서양의학이 동양과 교통하여 생리해부의 기술과 전염병 방역의 정책이 상세하고 구비되어 있으니 이에 동서의학연구회가 결성된 까닭이기도 하다.”라고 하여 동서의학연구회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대정 6년 봄부터 당국에서 비로소 『醫方綱要』와 『衛生要義』를 간행하여 의생들에게 배부하고 그 후에 의생시험문제를 모두 『醫方綱要』 중에서 내니, 의생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醫方綱要』를 읽지 않을 수 없으나 그 후에 다시 제작을 허락하지 않아 사람들 중에 책을 가진 자가 적어 능히 보급할 수가 없었다. 이에 도진우가 개탄하여 이에 뜻을 두니 오랜 고생으로 쌓은 공이 이제 겨우 마쳐졌으니 그 문법은 『醫方綱要』와 『衛生要義』를 따르고, 병명대조와 논증치료는 더욱 채용한 것이 많다. 진실로 의학의 연원이 되는 가문이 아니고서는 누가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⁶⁾라고 하여 『東西醫學要義』가 저술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서문의 내용은 동서의학연구회의 설립 배경, 『東西醫學要義』의 간행 배경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동서의학연구회는 당시 新醫學이었던 서양의학이 생리 및 해부의 기술[術]과 전염병 예방의 정책[政]이 상세히 구비되어 있어, 예부터 조선인들을 치료해 온[博施普濟] 한의학[舊醫學]이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3년 의생규칙이 공포되었을 때, 의생시험에 맞춰 의생을 양성하기 위한 공통 교재는 따로 없었다.⁷⁾ 그러던 중 교재 통일에 필요성을 느끼던 일제가 1917년 『醫方綱要』와 『衛生要義』⁸⁾를 배포하여 의생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보게 하였다. 『醫方綱要』는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衛生課에서 편찬한 것으로, 解剖及生理, 藥物學, 診療要術, 傳染病學內, 內科學, 外科學, 眼科學의 목차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서양의학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의생시험문제도 모두 서양의학 일변도일 뿐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醫方綱要』 간행 부수가 부족하여 의생시험을 준비하려는 자가 제대로 참고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원통하고 분하게[慨然] 여긴 都鎭羽가 『東西醫學要義』를 저술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있는 東西醫學研究會 庶務部長인 吳泰遊⁹⁾가 쓴 서문에서는 “무릇 醫를 행하는 사람은 단지 溫故知新하는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溫故를 항상 존재하는 것을 자르고 쓸어야 하는[切磋恒存] 道와 理에, 知新을 여전히 변하는 것을 쪼고 같아야 하는[琢磨尙變] 學과 術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東醫를 溫故心理之學으로 보고 이것이 현재 셋에 둘 정도만 존재하고, 西醫를 知新實驗之習으로 보고 이것은 백에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바라보면서 이에 대해 “우리 의학계의 의학에 대한 실망이 이보다 더함이 없다.”¹⁰⁾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동서의학을 竝合하기 위한 취지로 東西醫學研究會가 설립되었고 회원 중 조상 대대로 의학을 연마해 온 都鎭羽가 수년간 공을 들여 『東西醫學要義』를 편찬해 내었다고 하였다.¹¹⁾

이것을 살펴보면 吳泰遊는 당시 한의계의 상황을 “東醫

겪었다. 그가 한의사 단체의 주요 인물로 민족의식을 고취할지도 모를 인물로 일제에 의해 감시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 연구회에서 운영한 부속의학강습원이라는 한의사 양성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1923년에 『東西醫學要義』라는 책이 나올 때도 그 서문을 써서 이 책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이 책은 1917년에 나온 『醫方綱要』라는 책의 수요가 폭증함에도 간행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었다. 그가 근무한 순화의원에서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한 질환을 생강즙으로 치료해낸 일화는 유명하다. 그 내용은 양방치료로 해결하지 못한 환자를 진단해보니 꿩고기를 많이 먹어서 중독된 것으로 파악되어 생강즙으로 치료해낸 것이다.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09)-李乙雨 (1870~?)」, 민족의학신문, 2011년 12월 8일.)

6) 두 번째 서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夫要義者 要領之旨義也 凡事不得其要義則不可成立也 況於醫學者乎 今者醫有東西之學 何也 東醫學 卽舊學也 西醫學 卽新醫學也 東西醫學 謂之新舊學 可也 蓋自軒岐以來 四千有餘祀 但知有東醫學 故五運六氣之理와 三世四家之書를 互相傳受 迄今博施普濟 矣 挽近西洋醫學이 交通於東洋 生理解剖之術과 傳染防疫之政이 詳且備焉 此東西醫學研究會之所由成也 奧自大正六年春에 自當局으로 始刊醫方綱要及衛生要義 配付於醫生諸氏 其後醫生試驗問題를 皆從醫方綱要中出 志願醫生應試者不可不讀醫方綱要 然不許複製에 人衆冊少 莫能普及 於是 都君鎭羽가 慨然有志於此 七八星霜積累之工이 今纔告竣 其文法은 一從醫方綱要衛生要義而 病名對照와 論症治療는 尤有採用者多焉 苟非醫學淵源之家 孰能如是 噫 都君은 咸南醫界大名家之苗裔로 有志竟成者也 其嚴君股珪氏가 來僑於合 以命名曰東西醫學要義라 하고 屬余記序 余亦醫學之支流也 會員之忝席이라 莫能固辭 一以賀東西醫學之前進 一以慰都君父子之繼述也 後之醫學者 深究要義 各得要義則自東自西에 無思不服이니 庶本會之悠久鞏固而亦吾道之永傳 要義也 夫 乙雨 歲 亥猪 菊秋 下澣 / 東西醫學研究會副會長 李乙雨”

7) 『醫方綱要』의 緒言을 보면 “종래에는 警察官署가 醫生을 教養하는 서적을 (각각) 사용하였는데 지역마다 그 과정이 달라서 이에 本書(醫方綱要)을 편찬하여 통일하기로 한다. (從來警察官署所用教養醫生之書各地異其科程 乃爲期其統一 編纂本書)”라고 쓰여 있다.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衛生課, 『醫方綱要』, 京城: 日韓印刷株式會社, 1917:3.)

8) 『衛生要義』는 1918년 白石保成이 저술하여 日韓印刷所에서 인쇄한 『朝鮮衛生要義』로 추정된다.

9) 吳泰遊(1867~?)는 동서의학연구회 서무부장을 역임했다는 것 이외에 기록은 많지 않다. 그가 남긴 기록은 東西醫學研究會月報 제5호에 「外感及內傷의 略說」로, 內傷과 外感의 감별법을 소개하고 있다.

10) “所謂吾醫界醫學之落望이 莫過於此라”

는 현재 셋에 둘 정도만 존재하고 西醫는 백에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즉 한의학은 점점 망각해가고 있고, 시급히 받아들여야 할 서양의학은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양의학을 시급히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잊혀져가는 한의학을 익혀야 할 것인데, 그는 이 작업을 東西醫學研究會, 거기서도 회원 都鎮羽가 펴낸 『東西醫學要義』가 해냈다고 보고 있다.

2) 저자 都鎮羽와 都殷珪 父子의 활동

『東西醫學要義』 앞표지를 보면 좌측 상단에 “都鎮羽 著”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편 책 말미의 刊記를 보면 “著作 兼 發行人”에 “都殷珪”라고 적혀있다. 앞표지에 있는 저자 都鎮羽와 刊記에 있는 저자 겸 발행인 都殷珪와의 관계는 『東西醫學要義』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東西醫學要義』에 실린 세 개의 서문 중 당시 동서의학연구회 부회장이었던 이을우가 쓴 두 번째 서문을 보면 “其嚴君殷珪氏”라는 구절과 “都君父子之繼述”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를 통해 都殷珪와 都鎮羽는 父子關係임을 알 수 있다.¹²⁾ 또한 “都君鎮羽가 慨然有志於此호야 七八星霜積累之工이 今纔告竣호니” 등의 구절을 통해 都鎮羽가 저자임이 확인된다.

저자인 都鎮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료 상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都鎮羽는 『東西醫學要義』 이외에 다른 의학적 저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24년 발간된 『동서의학연구회월보』 제4호와 1925년 발간된 『동서의학연구회월보』 혁신 제1호를 보면 아버지 都殷珪는 “四象醫學의 解說”이라는 글을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고, 아들 都鎮羽는

책 뒷부분에 기재된 北間島 會員名簿에 이름만 나온다. 또한 『東西醫學要義』 서문을 통해서 都鎮羽가 아버지 都殷珪를 비롯하여 대대로 의학을 연구한 가문의 자제라는 정도만 알 수 있다.

저자 都鎮羽에 대한 정보는 현재로서는 아버지 都殷珪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유추할 수밖에 없다. 都殷珪의 출생년도는 1869년¹³⁾, 사망년도는 1940년¹⁴⁾으로 여겨진다. 1902년 함경남도 分奉常司 主事に 임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¹⁵⁾ 그 다음해인 1903년 分奉常司 主事 都殷珪의 본관을 依願免職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⁶⁾ 그는 또한 東西醫學研究會의 함경남도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四象醫學에 정통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서도 사상의학 관련 글을 연재한 적이 있다. 또한 1933년 『實生活』¹⁷⁾이라는 잡지에 “四象醫術 通俗 講座”라는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확실치는 않으나 지역적 관련성으로 인해 그가 이제마의 후학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¹⁸⁾

한편 1936년 6월 14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診察無料로 酬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都殷珪가 부내 종로3정목 39번지 保元醫院에서 진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것은 『東西醫學要義』의 발행소 保元醫院의 명칭과 일치한다. 따라서 都殷珪는 초기에 함경남도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서울로 이주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都殷珪의 아들 都鎮羽도 책 저술 및 출판 등과 관련해서도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와서 활동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都鎮羽와 都殷珪 父子의 활동은 『方藥合編』 간행으로 유

11) 세 번째 서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夫醫工은 只存乎溫古知新矣라 溫古는道也 | 며 理也 | 니 道理者는 切磋商存者也 | 오 知新者는學也 | 며 術也니 學術者는 琢磨尙變者也라 何者오 神農百草는 伏羲玉冊溫古之知新也 | 오 張氏傷寒은 黃帝素問[問]溫古之知新也 | 라 溫古者는 往也 | 오 知新者는 來也 | 니 往者를 勿失호고 來者를 勿去호라 勿失則已往存心이오 勿去則時變習學이니 此는三世四家之醫法系統也 | 라 挽近東醫溫古心理之學이 三存其二호고 西醫知新實驗之習은 百無一備호니 所謂吾醫界醫學之落望이 莫過於此라 何嘗歎哉아 醫學研究會設立 七八年趣旨都在於此 東西學并合本意라 何幸會員中 都君鎮羽氏는 累代醫家로 積年研工하야 東西醫學要義를編成호니 此誠吾全鮮醫界之曙光也夫인저 / 大正十二年十月日 / 東西醫學研究會 庶務部長 吳泰遊”

12) 『韓國醫藥人名辭典』을 보면 都鎮羽에 대해 1880년생이며 사망연대는 미상, 1922년 東西醫學要義 1권을 편술하며 동서의학 비교측면에 침범까지 병행하여 양진한지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부록으로 의생규칙과 서식을 정리했다고 하고 있고, 都殷珪는 1890년생이며 사망연대는 미상이고 號는 稚槐 藥人으로 1924년 四象醫學의 해설을 보고하였다고 하고 있다. (류희영, 신민교, 맹웅재, 『韓國醫藥人名辭典』, 서울:의성당, 1991:33.) 하지만 『東西醫學要義』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都殷珪는 都鎮羽의 아버지이므로 도은규가 1890년생이고 도진우가 1880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된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책의 간기를 보면 초판이 大正13년(1924년) 4월 23일 발행되었다고 쓰여 있어 1922년에 편술하였다는 것도 틀린 정보이다.

13) 『星州都氏大同譜』에 따르면 都殷珪의 字는 君高이고, 星州都氏 司正公派 (咸興) 25세손이다. (『星州都氏大同譜』, <http://sungjudossi.com>) 都鎮羽에 대한 기록은 족보상으로 찾아볼 수 없었다.

14) 1940년에 그가 의생면허를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그가 이 무렵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23)-都殷珪 (~1940)」, 민족의학신문, 2012년 3월 29일.)

15) 『承政院日記』 高宗 39년 壬寅 8월 29일 丙辰.

16) 『承政院日記』 高宗 40년 癸卯 1월 18일 甲戌.

17) 都殷珪, 「四象醫術 通俗 講座」, 實生活, 1933;4(5):30-31.

18) 정지훈, 「韓醫學術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韓醫學의 學術的 傾向」,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58.

19) 「診察無料로 酬應」, 東亞日報, 1936년 6월 14일.

명했던 黃度淵, 黃泌秀 父子나 앞서 언급된 『儒醫笑變術』을 간행한 金宇善, 金在溶 父子의 활동에 비견할 수 있다. 자식이 간행한 서적은 본인뿐 아니라 그 아버지, 또는 그 윗 세대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유전된 전통의 산물이었다. 자식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의업을 잇는 전통은 ‘개인’이 생겨나기 시작한 식민지 조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都鎭羽와 都殷珪 父子의 사례에서 보듯이 醫生을 교육 및 양성하는 근대적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성립이 가능하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당시 경성의전이나 세브란스 의전이 초창기 교재를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번역하여 썼던 것과 대조된다. 都鎭羽와 都殷珪 父子의 활동은 ‘이식’된 문물이 주도권을 행사하던 식민지 시기 한반도에서 전통으로부터 다른 방식의 근대를 ‘낳는’ 일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2. 편제 및 참고의서

1) 편제 및 목차

『東西醫學要義』 앞표지를 보면 “都鎭羽 著”라는 글씨와 함께 “東西醫學要義 全”이라는 글자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좌하단에는 “東西醫學研究會中央總部 發行”이라고 쓰여 있다. 맨 뒤에 있는 刊記를 보면 초판의 경우 大正 13년(1924년) 4월 23일 발행되었고, 大正 14년(1925년) 10월 22일에 再版인쇄, 大正 14년 10월 25일 再版발행으로 되어 있다.²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저작 겸 발행인은 都殷珪로 되어 있다. 발행소는 東西醫學研究會 中央總部, 인쇄소는 漢城圖書株式會社, 인쇄인은 魯基禎이다. 總發賣所는 인쇄소와 마찬가지로 漢城圖書株式會社로 되어 있으며, 發賣所는 保元醫院이다. 언어는 한의학 부분 설명에서는 한문체를, 서양의학 또는 법령 등의 설명에서는 국한문 혼용체를 쓰고 있다. 당시 본 책의 초판과 재판이 각각 몇 부 발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년 후에 바로 재판을 낸 것으로 볼 때, 당시에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923년 서울 안국동에 개점하여 많은 한의학 서적들을 출

판한 행림서원에서 1936년에 선진용으로 만든 『醫書總目錄』에 都鎭羽의 『東西醫學要義』도 언급되어 있으나²¹⁾ 현존하는 판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초판 발행 후 50여 년이 지난 1975년 朴東浩²²⁾에 의해 증보된 『東西醫學要義』²³⁾가 발간되었다.

『東西醫學要義』의 목차는 동서의학의 내용을 종합해 놓은 책답게 이전의 의학서적 목차와는 다른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다. 즉 생리, 진단, 전염병학, 잡병으로 이어지는 목차의 큰 틀 안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별히 서양의학에 해당하는 내용의 제목에는 제목 앞에 “(西)”라고 표시하고 한의학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제목에는 앞부분에 “(東)”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東西醫學要義』 이전의 한의학 서적에서는 보이지 않던 방식이다. 동서의 병증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것뿐 아니라 한의학 병증을 생리, 병리,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뇌척수신경계, 안이비구설 및 치과, 피부병, 전신병, 운동계 질병의 범주에 집어넣는 방식도 본 책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먼저 제1편에서는 東西生理概論이라는 제목으로 서양학과 한의학의 생리 이론을 설명하였다. 제1편 1장은 “(西) 生理解剖圖說”이라는 제목으로 총론, 신체 외부의 명칭, 뼈와 그 작용, 筋과 그 작용, 피부와 그 작용, 소화기 및 소화작용, 호흡기 및 호흡작용, 순환기 및 혈액작용, 비뇨기 및 생식기 작용, 신경계와 그 작용, 五官器와 그 작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부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하는 내용의 부분마다 골격계통, 체표부위, 근육계통,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오관계, 혈관계, 뇌척수신경계, 내분비계를 나타내는 해부도들이 삽입되었다.

제1편 2장은 ‘(東) 全身構造及作用各論’이라는 제목으로 『동의보감』 내경편의 내용들을 발췌하여 실었다. 세부 절들의 순서는 『동의보감』 내경편에 있는 순서를 따랐으며, 목차는 『동의보감』 내경편의 항목들을 모두 담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항목별로 일부씩만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다.

제2편 診察編은 제1장 脈法及生死候만 있으며, 여기에는 諸脈主病, 諸脈體狀, 諸脈主病歌, 死脈, 東西診論, 王叔和觀

20) 형태서지는 1冊 14.8×22.8 cm이고 총 429면, 鉛印本이다.

21)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400.

22) 함경북도 청진출신인 朴東浩는 1930년 무렵 함경북도에서 주취한 醫學講習會의 講師로 초빙된 田光玉(1871~1945)의 강의를 감복하여 3년 동안 그의 가르침을 받아 醫生試驗에 합격하였다. 그는 해방후 남한에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田光玉의 經驗方을 1955년 무렵부터 『東洋醫藥』이라는 잡지에 소개하였다. 부인과 경험방인 達生湯, 保產萬應湯, 生化湯, 產門破裂痛方 등이 그것이다.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31)-朴東浩』. 민족의학신문. 2012년 5월 24일.)

23) 都鎭羽 原著, 朴東浩 增補. 『增補 東西醫學要義』. 서울:章源社. 1975.

病生死侯歌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들은 『瀕湖脈學』(諸脈主病), 『醫學入門』(諸脈體狀, 諸脈主病歌, 死脈, 王叔和觀病生死侯歌), 『東醫寶鑑』(東西診論의 ‘東醫’부분)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東西診論 부분이 있어 한의학의 진찰법과 서양의학의 진찰법을 비교하여 세 줄 남짓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였는데, ‘東醫’부분의 경우 『東醫寶鑑, 審病』의 일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였고²⁴⁾ ‘西醫’부분의 경우 “청진은 맥을 듣는 기계[聽診器]를 사용하여 병세와 전신에 병이 든 큰 요점을 살피는 것이고 복진은 배안에서의 병의 근원 및 기타 부위에 대한 영향을 살피는 것이며 타진은 전신 각 부위에서 中氣性, 水性, 固性의 존재 위치를 알아내는 것”²⁵⁾이라고 하였다.

제3편 傳染病學에서는 먼저 아홉 가지 종류의 법정 전염병을 다루고[第一章 九種傳染病],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전염병들을 다루고 있다[第二章 諸種傳染病]. 이후의 장들에서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한의학 내용으로 상한[第三章 (東) 傷寒論]과 육기[第四章 (東) 六氣]를 다루고 있다. 이 편부터는 세부적인 병증이 나열되므로 그 앞 편과는 달리 병증마다 ‘(東)’, ‘(西)’ 기호를 써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제4편 雜病의 第十六章 中毒까지 계속된다.

제4편 雜病은 다시 총 18개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마지막 두 장인 第十七章 東西藥學, 第十八章 東西鍼法을 제외하면 消化器諸病, 呼吸器諸病, 循環器諸病, 泌尿器及生殖器諸病, 腦脊髓神經諸病, 耳科, 眼科, 口舌及齒科, 鼻科, 皮膚諸病, 全身病, 運動器諸病, 婦人科, 小兒科, 外科, 中毒으로, 인체의 각 기능계·기관별·기타 질환, 부인과 소아·외과·중독 질환의 범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제4편 雜病의 끝부분인 第十七章 東西藥學, 第十八章 東西鍼法 부분은 제목의 명명이 흥미롭다. 세부목차를 살펴보면 제17장 東西藥學에서는 ‘(東) 毒藥及劇藥區別’, ‘(西) 西藥用量’이라 하여 한의학 부분은 독약, 극약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약재종류를 기재하였고, 서양의학 부분은 약물 종류에 따른 1회極量, 1일極량을 명시해 놓았다. 한편 제18장 東西鍼法의 소제목은 ‘(東) 針術及仰伏人度’, ‘(西) 皮下注射及用量主治’로 나누었다. 이중 한의학 부분은 同身寸法, 12경락에 소속된 경혈 중 起始, 終止穴과 五腧穴들만을 선별하여 그것들의 위치와 자침 깊이, 유침 시간, 뜸 가능 여

부 또는 횟수를 기술하고 심이경락도를 표시하였다. 또한 각 경락마다 보사법을 표시해놓았다.²⁶⁾

표 1. 『東西醫學要義』 목차

例言	第四章 泌尿器及生殖器諸病
序 (金性琪)	第五章 腦脊髓神經諸病
序 (李乙雨)	第六章 耳科第七章 眼科
序 (吳泰遊)	第八章 口舌及齒科
	第九章 鼻科
第一編 東西生理概論	第十章 皮膚諸病
第一章 (西) 生理解剖圖說	第十一章 全身病第
第二章 (東) 全身構造及作用各論	第十二章 運動諸器病
	第十三章 婦人科
第二編 診察	第十四章 小兒科
第一章 脈法及生死候	第十五章 外科
第一節 諸脈主病	第十六章 中毒
第二節 諸脈體狀	第十七章 東西藥學
第三節 諸脈主病歌	(東) 毒藥及劇藥區別
第四節 死脈總訣	(西) 皮下注射及用量主治
第五節 東西診論	第十八章 東西鍼法
第六節 王叔和生死侯歌	(東) 鍼術及仰伏人圖
	(西) 皮下注射及用量主治
第三編 傳染病學	附錄
第一章 九種傳染病	傳染病豫防法
第二章 諸種傳染病	消毒法
第三章 (東) 傷寒論	醫生規則
第四章 (東) 六氣	書式
	遺補方
第四編 雜病	
第一章 消化器諸病	
第二章 呼吸器諸病	
第三章 循環器諸病	

2) 참고 의서

『東西醫學要義』 서문이나 범례에는 참고 의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25년 10월 30일자 동

24) 東醫方曰 望而知之者 望見五色 以知其病也 聞而知之者 聞其五音 以別其病也 問而知之者 問其所欲五味 以知其病也 切脈而知之者 診其寸口視其虛實 以知其病在何臟腑

25) 西醫方曰 聽診者 用聽脈器 能知病勢及全身受病大要也 腹診者 察知腹內 病根及他處影響也 打診者 能定全身各部 中氣性, 水性, 固性, 存在處也

26) 예를 들어 手太陰肺經의 경우, 보사법에 대해 “補瀉者 病者右手陰經 以醫者大指 前進呼之爲隨 退後吸之爲迎 病者左手陰經 以醫者大指 退後吸之爲隨 進前呼之爲迎 午後與女人反之”라고 표시하였다.

아일보에 실린 『東西醫學要義』 광고를 보면 “本書는 素問, 難經, 內經, 入門, 寶鑑의 妙諦와 西洋醫學의 神術及病名對照에 兼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 도진우가 직접 이 책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인용하였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인용한 책을 다시 인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의학 부분의 경우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하여 책 구성에 맞게 적절히 문장을 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第一編 東西生理概論에서 第二章 (東) 全身構造及作用各論의 第一節 身形, 精, 氣, 神, 血, 津液, 言語의 내용을 보면, 문장 중에 ‘聖惠方曰’, ‘上陽子曰’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대부분 『東醫寶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東醫寶鑑』의 문장들을 그대로 모두 인용하지는 않고, 저자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취사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학술 내용

1) 기존 지식의 선별 및 축약

앞 절에 언급했듯이 『東西醫學要義』에서는 『東醫寶鑑』을 주로 인용하되 문장 단위의 부분으로 저자가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인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第一編 東西生理概論에서 第二章 (東) 全身構造及作用各論의 第一節 身形, 精, 氣, 神, 血, 津液, 言語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節 身形, 精, 氣, 神, 血, 津液, 言語
身形

[1]聖惠方曰天地之精氣化萬物之形父之精氣爲魂母之精氣爲魄一月懷其胎如酪二月成其果而果李相似三月有形像四月男女分五月筋骨成六月鬢髮生七月遊其魂而能動右手八月遊其魄而能動左手九月三轉身十月滿足母子分解其中有延月而生者富貴而壽有月不足者貧賤而夭 ○[2]上陽子曰髮齒骨甲假之於地涕精血液假之於水溫煥燥熱假之於火靈明活動假之於風四大假合而生地之盛也骨如金水之盛也精如玉火之盛也氣如雲風之盛也智如神 ○[3]岐伯曰人生十歲五臟始定血氣始通眞氣在下故好走二十歲血氣始盛肌肉方長故好趨三十歲五臟大定肌肉堅固血脈盛滿故好步四十歲五臟六腑十二經脈皆太盛以平定腠理始疏榮華頽落髮

鬢班白氣血平盛而不搖故好坐五十歲肝氣始衰肝葉始薄膽汁始減故目視不明六十歲心氣始衰善憂悲血氣解墜故好臥七十歲脾氣虛故皮膚枯八十歲肺氣衰魄離故言善誤九十歲腎氣焦四臟經脈空虛百歲五藏皆虛神氣乃去形骸獨居而終矣 ○[4]素問曰心者君主之官神明出焉五味出焉大腸者傳導之官變化出焉小腸者受盛之官化物出焉腎者作強之官伎巧出焉三焦者決瀆之官水道出焉膀胱[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 ○[5]仙經曰腦爲髓海上丹田心爲絳宮中丹田膻下三寸爲下丹田藏精之府也中丹田藏神之府也上丹田藏氣之府也 ○[6]又曰背後有三關腦後曰玉枕關夾脊曰轆轤關水火際曰尾閭關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若得斗柄之機幹運則上下循環如天河之流轉也²⁷⁾

여기서 문장 [1]은 『동의보감·신형』의 胎孕之始 문단에 있는 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2]는 四大成形, [3]은 人氣盛衰, [4]는 人身猶一國, [5]는 丹田有三, [6]은 背後有三關에 있는 일부 문장들을 각각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東西醫學要義』의 저자 도진우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골라 요약의 형태로 서술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당대에는 최신 한의학 지식이라 할 수 있는 李濟馬의 의학 내용도 본문 중에 인용하였다는 것이다. 燥熱症尿多, 消渴의 병증을 보면 각각 李濟馬의 熱多寒少湯과 涼膈散火湯 등을 치료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최신 지식으로서 덧붙인 것이 아니라 해당 병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식 중의 하나로 李濟馬의 처방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각 질병명에 대한 계통적이고 요약적인 서술

『東西醫學要義』 「例言」 부분을 보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本書는 東西醫學諸科의 要領를 採取編纂 訢 者
一, 一編에는 東西生理概論 二編에는 診察法 三編及四編에는 實地治療를 主 訢야 各病症에 東西醫學을 對照 又난 類聚 訢야 原因, 診候, 鑑別, 豫後, 療法, 脈法, 針灸, 單方을 并收記載 訢
一, 病名을 系統的으로 類別키 爲 訢야 傳染病, 消化器,

27) 꺾쇠([])와 꺾쇠 안의 숫자는 필자가 표시하였다.

呼吸器, 循環器, 泌尿器, 生殖器, 神經系及五官器, 全身病, 運動器, 婦人科, 小兒科, 外科, 中毒, 藥學, 針術를 分類 編纂함

一, 凡病이 東醫學에 有흔 者가 西醫學에 無흔 者도 有흔며 西醫學에 有흔 者가 東醫學에 無흔 者도 有헐기로 病名弁頭에 但(東)이라 記호고 西가 無흔 者도 有흔 (西)라 記호고 東이 無흔 者도 有헐니 此에 詳考함
一, 本書 目錄에 對하야는 東西를 上下에 區分호고 目錄及病名對照表로 并用함

위 글을 보면 “계통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은 먼저 전염병,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비뇨기, 생식기, 신경계 및 기관, 전신병, 운동기, 부인과, 소아과, 외과, 중독, 약학, 침술 분류를 세우고 그에 맞게 동서양 병증들을 배속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 동서의학의 “요령”을 서술했다는 것은 병명에 따른 정보들을 한의학 병증의 경우 原因, 診斷, 鑑別, 豫後, 療法, 脈法, 針灸, 單方의 항목을 설정하고, 서양의학 병명의 경우 原因, 症狀, 診候, 療法/療方의 항목을 설정하여 그에 맞게 기술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東西醫學要義』 이전에 나왔던 한의서의 기술 방식과 차별된다. 물론 『동의보감』과 같은 서적들도 원인, 진단, 처방, 단방 등의 기술 순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서적들에서 그것들을 명시하여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의 병명들을 전염병,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 것도 이전 시기 서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3) 동서양 병명의 대조

『東西醫學要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서의학병명을 대조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第三編 傳染病學부터 第四編 雜病의 第十六章 中毒까지의 부분이 그러한데, 먼저 한의학 병증명을 제시하고 병증에 대한 원인, 증상, 진단, 처치, 예후 등을 기술한 다음 그에 대응하는 서양의학 병명과 해당 병명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한의학 병증에 해당하는 서양의학 병명이 없거나 반대로 서양의학 병명에 대응하는 한의학 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한 병증 또는 병명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東西醫學要義』에서 병명 대조는 먼저 傳染病 분야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보건의료당국의 가장 시급한 관심사가 전

염병의 예방·관리 및 치료였고 醫生에게도 이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였던 당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東西醫學要義』에서는 당시 법정전염병이었던 9개의 전염병과 나머지 전염병을 구별하여 동서양 병명으로 대조·설명하고 있다.

표 2. 第三編 傳染病學 第一章에 실린 九種傳染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傷寒瘟疫	腸室扶斯 바라지扶斯 發疹室扶斯	28)	페스도 (黑死病)
痢疾	赤痢	陽毒	猩紅熱
霍亂怪疾	고레라 (虎列刺)	痘瘡·時痘	痘瘡
流行性咽喉	지후데리아 (實布垚里亞)		

표 3. 第二章 諸種傳染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紅疫	麻疹	水痘	水痘
破傷風	破傷風 (強直症)	時行腮腫	流行性耳下腺炎
丹毒	丹毒 (羅斯, 風團, 紅丹赤遊丹)	脚氣	脚氣
疫咳	瘰咳	狂犬傷	恐水病
瘧疾	間歇熱 (瘧瘧, 麻拉尼亞)	馬毒	馬疫
時行感氣 (四時傷寒)	流行性感冒	熱入血室 (產後發熱)	產褥熱
霍亂	霍亂 (吐瀉病)	疫黃	와이루氏病 傳染性黃疸

第四編 雜病 부분은 각각 消化器, 呼吸器, 循環器 등 分別로 병명들을 나누어 대조 및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의서들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오장육부관에 입각해 목차를 나누는 방식에서 변화한 것이다. 雜病 안에서도 가장 먼저는 消化器諸病을 기재하였고, 그중에서도 勞倦傷을 가장 앞에 배치하였다. 대응되는 서양병명도 없는 勞倦傷이 가장 앞에 위치한 것은 당시 가장 많이 내원하던 주증상이 勞倦傷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후에 나오는 질환 계통에서도 대체적으로 빈발하거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질환이 앞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28) 대응하는 병증이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표 4. 第四編 雜病 第一章에 실린 消化器諸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勞倦傷			肝臟硬化症
食傷	(急性)胃加答兒	肝癰	肝臟膿瘍
酒傷		脹滿(鼓脹)	腹水
	酒客譫妄症	蠱病	
嘔吐	神經性嘔吐	蛔蟲	蛔蟲
噎膈反胃	胃擴張	寸白蟲	絛蟲
黃疸	黃疸	蟯蟲	蟯蟲
心痛	胃痛		十二指腸蟲
胃脘癰	胃癌	六鬱	
腹痛	(急性/慢性)腸加答兒	積聚	
吞酸, 嘈噓, 噯氣		泄瀉	

표 5. 第二章 呼吸器諸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咽喉	(急/慢性) (咽)喉頭加答兒	(久嗽)	(慢性)氣管枝加答兒
乳蛾	扁桃腺炎	肺痿肺癰	肺壞疽
吃逆	吃逆	勞瘵(陰虛火動)	肺結核
哮喘哮喘	氣管枝喘息	肺脹	肺氣腫
咳嗽	急性氣管枝加答兒		

표 6. 第三章 循環器諸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心動病			心臟內膜炎
脈病			心臟瓣膜病
怔忡	神經性心悸亢進症		心囊炎
健忘			心臟痙攣(一名絞心症)
驚悸			動脈硬化症 (동맥「아테롬」변성)

표 7. 第四章 泌尿器及生殖器諸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陰痿	陰痿	狐疝	歇婁尼亞
下焦病	精囊, 副睪丸, 睪丸病(睪丸炎, 副睪丸炎)		膽石疝痛
小便不禁	遺尿症		風氣疝痛
遺尿症	小便不禁	便毒	橫痃
夢遺(遺精)	遺精(症)	小便不利 (附小便不通)	
精滑	精液漏	關格	
下疳	軟性/硬性下疳	赤白濁	
燥熱症尿多	尿崩症		尿毒症
尿血	血淋/血尿症	大便燥結 (附不通)	常習便秘
淋疾	淋疾	脫肛	脫肛及直腸脫
浮腫	(急/慢性)腎臟炎	痔疾	痔核
疝病	疝		

표 8. 第五章 腦脊髓神經諸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氣不足	神經衰弱	麻木	
頭風	偏頭痛	脇痛	
頭痛		口眼喎斜	顏面神經麻痺
眩暈	眩暈	胃風面腫	顏面神經通 (三叉神經痛)
痛風	痛風	癱瘓(半身不隨)	脊髓癱
下體痛風	坐骨神經痛	乳痛	乳房神經痛
背痛	背肋間神經痛	臟燥症	歇私帝尼
中風		癲癇	癲癇
	腦出血	癲狂	
	腦貧血		躁鬱狂
	腦充血		鬱憂狂
風痺	麻痺	諸氣	

여기서부터는 『東醫寶鑑』 外形篇에 비견되는 耳科, 眼科, 口舌 및 齒科, 鼻科, 皮膚科 질환이 나온다. 『東醫寶鑑』 外形篇에 眼, 耳, 鼻, 口舌, 牙齒, …, 皮 등의 순서로 기재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표 9. 第六章 耳科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耳病(耳鳴, 耳聾, 重聽, 耳癢, 聾耳聾耳)	
聾耳聾耳	外聽道炎
	急性中耳炎

표 10. 第七章 眼科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眼疾 ²⁹⁾			加答兒性結膜炎 (風熱火眼)
雀目	夜盲症		顆粒性結膜炎 (일명 도라호-무)
漏睛	膿漏性結膜炎		實布的里性結膜炎
	白內障		水泡性結膜炎又選兵性結膜炎
	綠內障		角膜炎
	弱視及黑內障	遠視近視	
	亂視		眼臉緣炎
	麥粒腫		

표 11. 第八章 口舌及齒科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口瘡	口腔炎	齒痛	齒痛
鵞口瘡	鵞口瘡		齒齦炎
口疳	潰瘍性口內炎		齒槽膿漏
口, 唇, 舌病 說問 ³⁰⁾ (口臭, 唇腫唇瘡, 壘唇, 舌腫, 重舌)		齒壅	齒齦息肉

표 12. 第九章 鼻科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鼻病		衄血	鼻衄
傷風鼻感	鼻感冒	鼻鼈	酒鼈鼻
鼻痔	鼻茸	鼻淵	惡臭鼻漏

표 13. 第十章 皮膚諸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癩風	癩風		黃癬
發斑	紅斑(에리퇴마)		苔癬
癢痛	皮膚瘙癢症		乾癬
癩疹(두두럭이)	寄生性匍行疹		濕疹(胎毒)
疥癬	疥癬	毛落	頭髮脫落
	頑癬		

第十一章 全身病에 등장하는 한의 병증들은 『東醫寶鑑』에 있는 병증들 중에서 앞서 언급된 계통별, 부위별로 묶기 어려운 것들이다. 병증들을 살펴보면 주로 血 관련 병증과 痰飲 관련 병증이 全身病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서양 병명도 주로 혈액질환이 많다. 이외에 虛勞, 言語 및 聲音 병증, 消渴, 龜胸 및 龜背 등이 포함되었다.

표 14. 第十一章 全身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亡血	(急慢性)貧血	聲音	
吐血		津液	
虛勞		痰/飲	
	進行性惡性貧血(諸虛)	流注痰(痰飲流注/痰塊流注)	結核性關節炎
	壞血病(失苟兒陪屈)	咯血	咯血
	白血病	便血	
龜胸及龜背	佝僂病	舌衄	
消渴	糖尿病	九竅出血	
癩癧	腺病	齒衄	
言語			

第十二章 運動器諸病에 있는 한방병증은 『東醫寶鑑』 外形 병증 중에서 관절운동이 많은 부위를 별도로 잡아낸 것이다.

표 15. 第十二章 運動器諸病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肩臂痛		轉筋	腓傷筋痙攣
風濕骨痛	關節癱麻質斯	腰痛	
鶴膝風	膝關節炎		

婦人科와 小兒科는 이전에도 별도의 과로 분리되어 있었던 만큼 기존의 병증 분류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16. 第十三章 婦人科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月經不調	月經困難
血閉	月經閉止
崩漏	子宮出血
赤白帶下	白帶下
惡阻	妊娠嘔吐
求嗣	
下乳汁	乳汁過少症
	乳汁過多症
子癇及褥風	妊娠及產婦急癇
半產	流產
陰門諸病(陰挺, 陰脫, 陰腫, 陰癢, 陰瘡, 陰冷, 交接出血)	
	陰門搔痒症
	陰門炎
	陰加答兒(臃膿漏)
婦人產前(胎漏, 胎動, 難產, 死胎, 子煩, 子腫, 子淋, 子嗽, 子痢, 子瘡, 子懸, 妊娠傷寒)	
婦人產後(兒枕痛, 血暈, 血崩, 衄血, 喘嗽, 咳逆, 產後不語, 產後見鬼譫妄, 產後頭痛, 產後心腹腰脇痛, 產後嘔逆, 產後淋瀝, 產後泄利, 產後大便秘結, 產後浮腫)	

- 29) 眼疾을 內障諸症과 外障諸症으로 나누어 각각 21개, 47개의 하위병증과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총 68개의 하위 병증은 다음과 같다.
 (甲)內障諸證：圓翳，水翳，滑翳，澁翳，散翳，橫翳，沈翳，假月翳，棗花翳，黃心瞳，黑花翳，胎患，五風變，雷頭風，綠風，烏風，黑風，青風，雀目；
 (乙)外障諸證：肝藏積熱，混睛，努肉攀睛，兩臉粘睛，膜入水輪，釘翳根深，黑翳如珠，花翳白陷，水瑕深眇，玉翳浮滿，順逆生翳，鷄冠蜆肉，臉生風粟，胞肉脂凝，漏睛濃出，蟹睛疼痛，突起睛高，風足喎偏，倒睫拳毛，風牽臉，神崇疼痛，旋螺尖起，鵝眼凝睛，輾轉轉關，被物撞打，撞刺生翳，血灌瞳人，眯目飛塵飛絲，天行赤目，赤眼後生翳，胎風赤爛，風赤瘡疾，衝風淚出，暴風客熱，臉硬睛痛，痛如針刺，痒極難任，瞳人乾缺，黃膜上沖，赤膜下垂，小眇赤脈，小兒通睛，小兒胎中生翳，小兒青盲，偷針，眼痛，眼昏，瞽膜。
 30) 팔호 안의 질환에 대한 진단법, 증상,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표 17. 第十四章 小兒科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臍風	臍炎	痙瘓	
吐瀉	嬰兒虎列刺	小兒驚癇	小兒急癇
急驚風	腦膜炎	食積	(小兒急慢性) 消化不良
慢驚風		疳病	
慢脾風			乳兒脚氣
天吊驚風		小兒病問答 (夜啼, 馬脾風, 五軟五硬, 解顛, 顛填顛陷, 腹脹, 身熱, 五臟虛實)	

外科의 경우 『東醫寶鑑』 雜病篇에 있는 癰疽, 諸瘡 및 諸傷門 등에 등장하는 병증들이 기재되었다.

표 18. 第十五章 外科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癰疽	癰疽(背瘡)	湯火傷	火傷
大風瘡	癩病	凍傷	凍傷及凍瘡
楊梅瘡	全身黴毒	金刀傷及折傷	
軟癰	癰瘍		創傷
瘰癧	瘰癧	瘰癧	尋常性瘰癧

第十六章 中毒은 『東醫寶鑑』 雜病篇 解毒門에 있는 한방 병증들이 기재되었다.

표 19. 第十六章 中毒의 동서양 병명대조

東	西	東	西
蠱毒		砒霜毒	砒霜中毒
燒酒中毒	酒精中毒	毒蛇中毒	毒蛇中毒
水銀中毒	水銀鹽中毒	蕈菌中毒	毒菌中毒
肉毒	(腸詰及)腐肉中毒	藥物中毒	
河豚中毒	河豚中毒		

이와 같은 동서양 병명대조가 『東西醫學要義』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동서의학 병명 대조를 위한 노력은 1883년 일본인 落合泰藏이 지은 『漢洋病名對照錄』³¹⁾을 통

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³²⁾ 이후 한반도에서는 1914년 홍중철이 지은 『醫生必攜』, 1915년 최동섭이 전국의생대회 때 발간해 전국의 의생들에게 배포한 소책자인 『醫門須知』에 실리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동서병명의 대조 작업은 의학계에서 심심찮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했던 단행본 뿐 아니라 학술지에도 동서병명의 대조가 언급되는데 특히 1918년에 『朝鮮醫學界』라는 학술지는 “西醫가 東來한 후 東西醫의 병명 대조가 행해지고 있으나 그 진수를 정통한 것이 별로 없어 疑雲을 야기치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해석을 가하여 다시금 이론적 대조를 시도한다.”³³⁾라고 하면서 30여 동서의학 병명 대조에 대한 설명을 연재하기도 했다.³⁴⁾

『東西醫學要義』도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東西醫學要義』가 기존 동서병명대조 서적과 다른 점은 기존처럼 단순 병명 대조 내지 병명 설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각 병명에 해당하는 원인, 진단, 증상, 치료, 예후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서양 병명 대조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東西醫學要義』 이후에도 동서양병명 대조는 ‘동서양병명 대조표’의 형식으로 『靑囊訣』(1924), 『袖珍自解 醫經精義』(1928), 『秘傳萬病通治法』(1933), 『新校正 方藥合編』(1940) 등 많은 서적에 인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서 고찰해봐야 할 것은 과연 동서양병명 대조가 왜 이루어지게 되었나 하는 것이다. 동서양병명 대조를 통해 이론적 회통을 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朝鮮醫學界』에서 唐宗海의 『中西匯通醫經精義』를 인용해 게재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지만, 이 이상의 논의가 지면상에서 일어나지는 못했다. 또한 『東西醫學要義』 이후에 많은 서적들에서 ‘東西病名對照表’를 부록형식으로 첨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상세히 전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동서양병명 대조의 목적을 1938년 간행된 『漢方醫藥』 19호에 실린 글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內鮮病名對照表’가 실려 있는데 그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31) 落合泰藏 著, 淺田宗伯 校. 『漢洋病名對照錄』. 간행인 및 간행지 미상. 188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2) 이종형. 『한국동의학사』. 서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회. 1981.

33) 이에 대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西醫가 東來한 이후로 遂히 病名의 東西가 有하고 藥名의 東西가 有하여 往往히 病名의 對照와 藥名의 對照가 現出하였스니 其眞髓를 精通한 者이 幾希한 바 今에 病名對照의 一例를 擧히건진 同病同名(例如 吐血「吐血」偏頭痛「偏頭痛」之類)의 對照가 有하고 同病異名(例如 腦充血「卒中風」日射病「中暈」之類)의 對照가 有하니 此와 如히 者는 其對照가 正確해야 贅論을 必要가 無는 種種히 異病異名(例如 腦膜炎「驚風」膀胱疾患「赤白濁」之類)의 對照가 有하여 一般醫者로 是하야 疑雲을 惹起하는 感이 不尠히지타 茲에 各種의 病名을 對照釋解하며 又는 諸臟器에 屬한 病名을 分類하여 僉位讀者의 万一에 供코져 是하야 其正確明細은 高明大家의 更加攷正을 庸埃하노라.”(『東西病名對照釋要』. 朝鮮醫學界. 제5호. 1918.)

34)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322.

醫家の 診療簿 診斷書 又は 檢案書에 記載한 病名이 區區히 互할 畧더러 就中에는 自家獨稱의 病名을 附함을 相當히 보게 됨은 遺憾한바이며 取扱當局에서도 病名의 不完全함으로 書類整理上 無用의 手數를 要한다 함은 往往히 듯는 바임으로 茲에 內鮮病名對照表를 記하오니 充分研究하시와 業務進行上 將又書類整理上 一助가 됨을 바라는 바 이외다³⁵⁾

즉, 당시 의생들이 진료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작성할 때에 본인들만 아는 병명을 기록하여 타인이 그 병명을 알기 어려운 경우를 막기 위해 일종의 ‘표준화’된 병명 대조표를 당국에서 제시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사망진단서를 의사(醫師)보다 의생이 더 많이 발급했다는 통계를 보면³⁶⁾ 왜 당국까지 나서서 ‘동서양병명대조표’를 보급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서양병명의 대조는 초기에는 학문적으로 두 의학체계의 용어를 회통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식민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구집단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당시 의료직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의생을 교육하려는 자료의 성격으로 변화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³⁷⁾

4) 東西針法

『東西醫學要義』 18장의 제목은 ‘東西針法’이다. 이 장은 다시 ‘(東) 針術’과 ‘(西) 皮下注射藥及其量主治’로 나누어진다. 장의 제목을 ‘동양과 서양의 침’이라고 표현한 것이 흥미로운데, 이것은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西針’이란 서양에서의 주사(注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장에서는 동양의 針과 서양의 주사를 같은 범주에 놓고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東) 針術’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몸의 각 부위를 이용해서 촌수를 계산하는 同身寸法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십이

경락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십이경락에 대한 설명에 경락유주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起始穴과 해당 경락의 혈 개수, 보사법과 함께 五俞穴의 혈 이름, 위치, 자침 깊이, 뜸 가능 여부 또는 횃수, 禁針穴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여기에서 십이경락에 소속된 모든 경혈이 아닌 오수혈 위주로 기재되어 있는 연유를 이 책이 한 醫家の 독창적인 의학 이론을 담은 서적이 아닌 다수의 의생 및 의생시험 준비생을 위한 일종의 표준화된 교과서라는 사실과 당대의 침구 학술풍토를 고려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의생을 교육하는 데 쓰였던 서적인 『經絡學總論』³⁸⁾을 살펴보면 五行針術法, 補瀉正勝法이라 하여 오늘날의 사암침법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혈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의생들에게 표준화된 침구치료법으로써 사암침법의 한 형태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西) 皮下注射藥及其量主治’에서는 石炭酸, 安知必林, 鹽酸亞剝莫兒比涅水, 硫酸亞篤魯必涅水, 依的兒, 樟腦油, 鹽酸規尼涅水, 鹽酸古加乙涅, 鹽酸古坭乙涅水, 安息香酸那篤伊留謨咖啡涅水, 麥角越水, 鹽酸「헤로인」, 鹽莫水, 亞砒酸加里液水, 食鹽水, 鹽酸必魯加兒比涅水, 硝酸斯篤尼規尼涅水 17가지 주사액에 대한 약품분량, 餽水分량, 1회 주사량, 主治가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東針法과 西針法(서양의 주사법)에 대한 내용이 실린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의 보건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醫生들도 西針(주사)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의료직능간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도시를 제외하면 서양의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醫師는 극히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의들이 한 의학 치료뿐 아니라 전염병, 응급 질환 등 간단한 서양의학 치료를 병행했다.³⁹⁾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 서양의학을 강제하는 암울한 상황에서 서양의 주사요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針이 있음을

35) 忠淸南道衛生課. 「內鮮病各에 就하야」. 漢方醫藥. 19호. 1938.

36) “쇼와16년(1931년) 조선인의 결핵성 환자 사망자 수가 1만4천666명이고 이를 조사한 사망진단서는 4만9천53건이다. 이 중 의사가 기재한 것이 2할 2푼이고 의생이 기재한 것은 5할 7푼이다. ...” (朝鮮總督府. 『帝國議會 說明資料』. 1944. (『2012 한국사회사학회 발표자료집』에서 재인용)

37) 이런 맥락은 현재에까지 맞닿아있다. 이종형(1981)은 한국에서 동서의학 비교연구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이 병명의 비교대조라고 하고 있다. 그는 그 사례로 1910년 개최된 朝鮮醫師研鑽會에서 시도된 것, 1918년 李晷秀가 『朝鮮醫藥界』 잡지에 62종 병명대조에 대한 설명을 한 것, 1924년 도진우의 『東西醫學要義』, 그리고 저자가 1972년에 WHO 통계자료로서 정부 통계국의 의뢰를 받아 총 1600여 항목에 달하여 동서의 병명대조를 한 것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종형. 『한국동의학사』. 서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1:70).

38) 정유용 외(2009)는 『經絡學叢書』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암침법을 소개하는 활자화된 책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미 1922년 이전에 사암침법을 쓰는 임상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유용, 차용성, 김남일. 『일제시대 사암침법에 관한 의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9;22(1):49.)

39) 이러한 맥락에서 ‘西藥’을 잘 사용하기 위한 지침서인 『西藥活套』(1933년, 京城中央印書 발행)와 같은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이 책을 주로 사용한 부류는 醫生신분의 한의들이었다. (안상우. 「고의서산책(566)-西藥活套①」. 민족의학신문. 2012년 12월 20일.)

제시한 것이다. 특히 여러 針法 중에서도 오수혈을 근간으로 하는 사암침법이 그 신속함과 간편함으로 주사요법에 대응할 만함을 간접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5) 법령 및 서식의 수록

『東西醫學要義』의 부록 편에는 傳染病豫防法摘要, 消毒方法, 醫生規則 및 醫師規則摘要, 그리고 의생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이 실려 있다.

이 내용들은 임상과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당시 의생으로서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했던 것들이다. 실제로 의생들은 한의학 치료 외에 전염병 예방, 진단 및 신고업무, 사망진단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했다. 특히 당시에는 ‘전염병의 유무’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점이다.

일제강점 이후 국가가 醫師規則, 醫生規則 등의 공포로 의료인력의 통제 및 관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염병 환자 신고 및 관리, 사망진단서 발급 등 인구 관리 업무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東西醫學要義』에 실린 서식들은 이러한 식민지배 하에서 근대적인 국가 관리 및 통제시스템이 작동하던 초창기 모습의 단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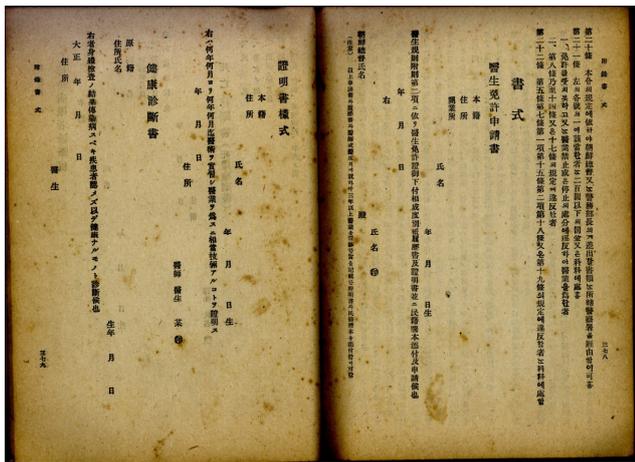


그림 1. 醫生免許申請書, 證明書樣式, 健康診斷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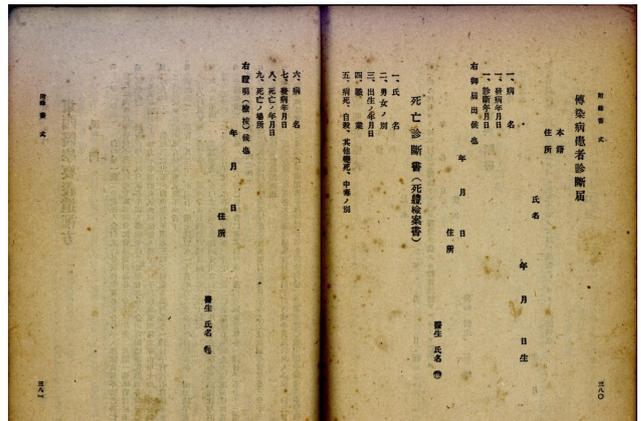


그림 2. 傳染病患者診斷屆, 死亡診斷書(死體檢案書)

6) 遺補方 기재

『東西醫學要義』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東西醫學要義遺補方⁴⁰⁾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들이 실려 있다. 이 처방들은 모두 『方藥合編』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로, 活套針線에 있는 목차에 맞춰 『東西醫學要義』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면서 『方藥合編』에 있는 일부 주요 처방들을 나열하고 있다.⁴¹⁾ 또한 뒷부분에는 炒製法, 服藥法, 湯散丸丹法에 대한 설명이 있는 製造門과 주요처방들에 대한 加減法을 수록하였다. 기존 처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축약한 『方藥合編』의 처방들을 한 번 더 요약·정리한 본 부분은 당시 의생 및 의생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한의학 임상을 실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필수처방과 같은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당시에 널리 보급되었던 『方藥合編』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편제를 지니고 있는 『東西醫學要義』가 대중들로부터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方藥合編』의 주요한 부분들을 넣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炒製法, 服藥法, 湯散丸丹法이 수록된 것을 통해 당시 질병 인식의 측면에서는 서양의 것들을 수용했지만 약의 제조법에 있어서는 아직 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때에도 몇몇 약들이 대량생산되기는 했으나,⁴²⁾ 여전히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처방자가 관여해서 만들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40) 목차에는 ‘遺補方’이라고만 되어있으나 본문에는 ‘東西醫學要義遺補方’으로 되어 있다.

41) 東西醫學要義遺補方 내 목차 중 ‘眼門’과 ‘耳門’의 순서가 바뀌고 『方藥合編』에서 ‘顛項’과 ‘背’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項背門’으로 합친 것, ‘婦人’을 ‘婦人, 婦人産前, 婦人産後’ 세 개로 나눈 것, ‘小兒門’ 뒤에 醫方活套의 ‘諸傷門’을 추가한 것이 『方藥合編』 活套針線의 목차와 다르다.

42) 자세한 내용은 양정필, 「한약업자의 대응과 성장」: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서울:아카넷, 2008:225-59. 박윤재, 「청심보명단 논쟁」, 같은 책, p. 260-77참조.

Ⅲ. 결론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東西醫學要義』는 의생규칙 반포 이후 공식적으로 서양 의학의 교육 및 시험만 허용된 상황에서 한의학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한의학 협회의 집단적·공식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都鎮羽는 東西醫學硏究會에서 활동하고 사상의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던 都殷珪의 아들로, 이들 부자의 행적을 통해 식민지 근대 속에서 한의학 전통이 변화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구성상의 특징으로 『東西醫學要義』는 생리, 병리,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뇌척수신경계, 안이비구설 및 치과, 피부병, 전신병, 운동계와 같은 서양의학의 분류 체계에 한의학 지식들을 집어넣어 재편하였다. 한의학 지식에 있어서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되 그것들을 요약 및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에 있는 내용과 처방들도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서양 병명의 대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서양병명의 대조 작업은 『東西醫學要義』 이전에도 있었지만, 병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대조한 것은 한의학 서적 중에서는 『東西醫學要義』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東西醫學要義』는 의학 이론과 처방뿐 아니라 법령 및 서식들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본 책의 목적이 단순히 한의학 학습자 개인의 임상 능력 배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식민지 근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학 종사자로서 갖춰야 하는 지식과 활동의 범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4058286).

참고문헌

1. 『承政院日記』.
2.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衛生課. 『醫方綱要』. 京城:日韓印刷株式會社. 1917.
3. 都鎮羽. 『東西醫學要義』(再版). 京城:漢城圖書株式會社. 1925.
4. 落合泰藏 著, 淺田宗伯 校. 『漢洋病名對照錄』. 간행인 및 간행지 미상. 188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 東西醫學硏究會. 東西醫學硏究會月報 創刊號. 1924. 12. 30.
6. 都殷珪. 「四象醫術 通俗 講座」. 實生活. 1933;4(5):30-31.
7. 「診察無料로 酬應」. 東亞日報. 1936년 6월 14일.
8. 忠淸南道衛生課. 「內鮮病各에 就하야」. 漢方醫藥. 19호. 1938.
9. 都鎮羽 原著, 朴東浩 增補. 『增補 東西醫學要義』. 서울:章源社. 1975.
10.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 파주:들녘. 2011.
11. 류희영, 신민교, 맹웅재. 『韓國醫藥人名辭典』. 서울:의성당. 1991.
12.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서울:아카넷. 2008.
13. 이종형. 『한국동의학사』. 서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회. 1981.
14. 정유용, 차웅석, 김남일. 「일제시대 사암침법에 관한 의사학적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9;22(1):47-55.
15. 정지훈. 「韓醫學術雜誌를 중심으로 살펴본 日帝時代 韓醫學의 學術的 傾向」.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16.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09)-李乙雨 (1870~?)」. 민족의학신문. 2011년 12월 8일.
17.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23)-都殷珪 (~1940)」. 민족의학신문. 2012년 3월 29일.
18.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사(131)-朴東浩」. 민족의학신문. 2012년 5월 24일.
19. 안상우. 「고의서산책(566)-西藥活套①」. 민족의학신문. 2012년 12월 20일.
20. 『星州都氏大同譜』, <http://sungjudossi.com>